

8주차 문학 - 극·수필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독서와 문학이 격주로 금요일 10시 30분에 업로드됩니다. 오르비 '인터넷 공부 친구' 팔로우하고 좋은 글 보세요!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는...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국어 모의고사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1인 연구소입니다.

수능특강 평가원 형식 편집 버전 공유도 그 활동의 일부입니다.

현재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는 무료 모의고사 배포, EBS 자료 공유, 문항 공급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가 발간한 '단지하프모의고사'는 수능의 기조와 난이도를 동시에 잡은 모의고사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직 국어강사께서 '추론력과 적용력을 키우기에 탁월하다,'라고 하신 것은 그 문항들의 품질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 하나, 지문의 조사 하나까지도 고심해 문제를 만들며, 꼼꼼한 검토진을 통해 문제의 완성도에 더욱 만전을 기합니다.

이번 '매주 23수특 평가원 형식 N제'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학습에 활용하시고 저희 한아름국어모의고사연구소에 대해 아아가셨으면 합니다. 입시에서의 전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단지하프모의고사 구매하기 ↓



협업, 문항 공급은 오르비 '인터넷 공부 친구'로 문의 바랍니다.

제 1 교시

8주차 문학 - 극·수필

성명

수험 번호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하였다.)

말뚝이: 애, 그러나저러나 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쇠뚝이: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겼단 말이나?
 말뚝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댁의 섣님, 서방님, 도령님을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을 의막을 정하지 못하였다. 나는 여기 아는 친척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어 곤란하던 차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다. 애, 나를 봐서 우리 댁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정해 다오.
 쇠뚝이: 옳지, 구경을 하다가 의막을 정하지 못하였구나. 그래라, 의막을 하나 정해 주마. ㉡(놀이판을 여러 번 돌고 나서 말뚝이 앞으로 다가간다.) 애, 말뚝아,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지었다. 애, 보아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 안팎 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 바깥사랑에는 동그랗게 말뚝을 돼지우리같이 박고, 안은 동그랗게 담을 쌓고, 문은 하늘로 냈다. 이만하면 되겠지.
 말뚝이: 그럼.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로구나. 그 방에 들어가자면 물구나무를 서야겠구나.
 쇠뚝이: 암, 그렇고말고.
 말뚝이: 애,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불찰이지. 미안하지만 우리 양반들을 안으로 모셔야겠다.
 쇠뚝이: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상관에 있느냐. 너는 대관절 그 댁의 누구란 말이나?
 말뚝이: 나는 그 댁의 하인이다.
 쇠뚝이: 그러면, 그 양반들이 어디에 있느냐?
 말뚝이: 저 밖에 있다. 우리 어서 안으로 모시자.
 쇠뚝이: (쇠뚝이는 앞에 서고 말뚝이는 뒤에 서서, 양반을 의막 안으로 모는 소리를 한다.) 고이 고이 고이.
 말뚝이: (쇠뚝이 뒤에서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친다.) 두우 두우 두우.
 섣님: (의막 안에 들어가서 앉으며) 애, 말뚝아.
 말뚝이: 네이- .
 섣님: 이 의막을 네가 정하였느냐? 누가 정해 주었느냐?
 말뚝이: (쇠뚝이를 보고) 애, 우리 댁 섣님께서, “우리가 거처할 이 의막을 누가 잡았느냐? 네가 얻었느냐, 누가 다른 사람이 얻었느냐?” 하고 말씀하시기에 “이 동네 아는 친구 쇠뚝이가 얻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그럼

개 좀 보자꾸나.” 하시는데, 들어가서 네가 섣님을 한번 뵈는 게 좋겠다.
 쇠뚝이: 내가 그런 양반들을 왜 뵈느냐?
 말뚝이: 너, 그렇지 않다.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 꼭 뵈어야 한다.
 쇠뚝이: 그러면 네 말대로 보고 오마.
 말뚝이: 어서 갔다 오너라.
 쇠뚝이: ㉢쳐라. (악사들이 타령 장단을 연주하면, 쇠뚝이가 춤을 추면서 양반 일행 앞뒤를 돈다. 연주를 중지하면, 말뚝이 앞으로 와서) 애, 내가 가서 양반들을 자세히 보니 그놈들은 양반의 자식들이 아니더라. 섣님을 보기도포는 입었으나 전대띠를 두르고, ‘두부 보자기’를 쓰고 꽃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었는데, 그 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나? 한량의 자식이지. 또 서방님이란 자를 보니 관은 썼으나 그놈도 꽃 그림이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으니, 그 게 무슨 양반의 자식이나? 잡종이더라. 또 도령님이란 놈은 전복에 전 대띠를 매고 ‘사당 보자기’를 썼으니, 그놈도 양반의 자식이 아니더라.
 말뚝이: 아니다, 그 댁이 무척 가난하여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을 맞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
 쇠뚝이: 옳거니,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섣님: (말뚝이를 부른다.) 말뚝아- .
 말뚝이: 네이- .
 섣님: 너- 어디 갔었느냐?
 말뚝이: 네- . 섣님을 찾으려고요.
 섣님: 어디로?
 말뚝이: 네이- . 서산 나귀 솔질하여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안장을 높게 놓아 가지고 안남산 박남산 벽계동으로 칠패 팔패 돌모루 동작강을 건너 남대문 안을 썩- 들어서니, 일간장 이먹골 삼청동 사직골 오궁터 육조 앞 칠관안 팔각재 구리개 십자각 아이머리 다방골로 어른머리 감투전골로 해서 요, 언청다리 쇠경다리를 건너와서 배우개 안 네거리를 썩- 나서서 아래위로 치더듬고 내리 더듬어도 섣님의 새끼라고는 개새끼 한 마리 없기에, 아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았더니 내소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기에 나와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다시 산대놀이판에 와서 보니 내 증손자 아들놈을 여기서 만나는구려. (하며 섣님의 탈을 탁 친다.)
 (중략)
 말뚝이: (쇠뚝이를 붙잡고서) 이놈아, 어서 들어가자. 너를 잡

아들이시란다.
 쇠뚝이: (가지 않겠다고 버틴다.)
 말뚝이: ㉠(버티는 쇠뚝이를 거꾸로 끌고 와서, 쇠뚝이의 엉덩이가 샌님 쪽으로 향하게 잡아들이며) 쇠뚝이 잡아들었소.
 샌님: 여-. 그놈의 대가리는 정주 난리를 갔다 왔느냐?
 말뚝이: 이놈의 대가리가 하도 험상스러워서 샌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실까 봐 거꾸로 잡아들었소.
 샌님: 그놈의 머리를 빼다가 밑구녕에 짹- 박아라.
 말뚝이: 네이-. 짹- 박았소.
 샌님: (앞에 꿇어앉아 있는 쇠뚝이를 향하여) 여봐라- 이놈-.
 쇠뚝이: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나더러 ‘이놈’ 이래?
 샌님: 네 이름이 무엇이란 말이나?
 쇠뚝이: 내 이름은 아침 아 자(字), 번개 번 자요. 샌님이 부르시기에 아주 적당한 이름이오. 한번 불러 보시오.
 샌님: 애, 이놈의 이름이 왜 이리 평평하냐? 번아-.
 쇠뚝이: 샌님은 글을 배우셨으니, 붙여서 불러 보시오.
 샌님: (이름을 불러 보지도 못하고 찢찢매면서) 아-. 이놈의 이름이 왜 이리 팽팽하냐? 번아-.
 쇠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어서 불러요. 글을 배우셨으니 바로 붙여서 불러요. 어서, 빨리, 왜 질질 매세요?
 샌님: 아 자, 번 자야-.
 쇠뚝이: 이것 보게? 아 자, 번 자가 무엇이오? 도대체 샌님이 글을 배웠소? 어서 그러지 말고 붙여 불러요.
 샌님: (붙여서 불러 보지도 못하고 찢찢매며) 아-.
 쇠뚝이: 어서 붙여서 불러 봐요.
 샌님: 아, 이상한 이름도 다 보았다. 왜 이리 팽팽하냐? 아-. 아버지-.
 말뚝이: (샌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자 샌님을 향하여 대답한다.) 왜 그러느냐?
 - 작자미상, 「양주별산대놀이」 -
 *양주: 지명. 경기도 동북쪽에 있는 시.

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적 진술을 통해 장면의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갈등 상황의 해결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내적 독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이 지닌 교훈성을 드러내고 있다.

2. <보기>를 활용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양주 별산대놀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 지방에서 연행되어 오는 전통 가면극의 일종이다. 일정한 줄거리를 갖춘 이야기와 탈, 춤, 음악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극으로, 주로 넓은 마당에서 별다른 무대 장치 없이 공연되었다. 또한 내용 전개에 따라 극 중의 공간이 신축성 있게 변형되어 제시되었고 악공과 관객의 극의 진행, 또는 극 중 현실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였다.

- ① ㉠: 공연이 연행되는 실제 장소와 극 중 장소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② ㉡: 인물의 말과 행동만으로 일정한 무대 장치의 설정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악공의 역할이 극의 진행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가면극이 인물의 대사에 춤과 음악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 예술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⑤ ㉤: 인물의 실제 움직임을 통해 갈등이 벌어지는 극 중 공간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로구나.’와 같은 반어적 서술을 통해 양반에 대한 풍자를 드러내고 있군.
- ②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친다.’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양반을 동물과 같이 취급하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과 같은 가정적 진술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는 당시 양반의 부패상을 표현하고 있군.
- ④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서’와 같이 앞말의 반복을 통해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의 처지에 대한 동정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내 이름은 아침 아 자(字), 번개 번 자요. 샌님이 부르시기에 아주 적당한 이름이오.’와 같이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 양반의 권위에 대한 조롱을 표현하고 있군.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레는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투에 쓰는 용차(戎車), 작업에 쓰는 역차(役車), 물을 실어 나르는 수차(水車), 대포를 싣는 포차(砲車) 등 그 쓰임새에 따라 수천 수백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창졸간에 모두 이야기할 수는 없다.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므로,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전에 답헌 홍대용, 성재 이광려와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 있다. 수레 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궤(軌), 즉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 같도록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른바 바퀴 간격을 같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레의 축과 양쪽 바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이 정해진 법식을 어기지 않는다면 모든 수레의 바퀴자국이 통일될 것이다.

『중용』에서 말하는 이른바 수레바퀴의 간격이 같다는 뜻의 ‘거동궤(車同軌)’가 바로 이것이다. 두 바퀴의 간격을 제멋대로 넓게 하거나 좁게 한다면 길의 바퀴자국이 어떻게 한 가지 틀에 들어갈 수 있으랴! 지금 길을 따라 천 리 길을 오면서 매일같이 수많은 수레를 보건만, 앞의 수레나 뒤의 수레가 동일하게 하나의 바퀴자국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미리 짜지 않고도 같게 되는 것을 일러 한 수레바퀴의 자국이라는 뜻의 ‘일철(一轍)’이라 말하고, 뒤에 오는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의 행적을 일러 ‘전철(前轍)’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성의 문턱에 바퀴가 닿는 곳에는 움푹하게 홈통이 생기는데, 『맹자』에서 말하는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城門之軌]’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수레가 없었고, 아직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으며 바퀴자국이 하나의 궤에 들지 않으니, 이는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고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닳이지 않았을 뿐이다. 수레가 다니게 된다면 길은 절로 뚫리게 마련이니, 어찌 길거리가 좁다거나 고갯마루가 높음을 걱정하랴? 『중용』에서 말한 ‘수레와 배가 이르는 곳,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곳’이란 바로, 아무리 멀더라도 수레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중국에도 검각(劍閣)에는 아홉 굽이나 되는 험한 길이 있고 태항산(太行山)에는 양의 창자처럼 위태한 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수레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다. 이 때문에 섬서, 사천, 강소, 광둥, 복건, 광서 지방 같은 먼 곳이라도 큰 장사꾼들과 식솔을 이끌고 부임하는 관리들이 수레바퀴를 서로 부딪쳐 가기를 마치 자신의 마당을 밟고 가듯 하는데, 수레가 내는 굉음이 마치 구름도 없는 백주 대낮의 뇌성벽력 소리 같다.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마천령(磨天嶺)과 청석령(靑石嶺)의 고개, 장항(獐項)과 마전(馬轉)의 비탈길이 어찌 우리나라보다 덜하였던가? 그 바위가 가로막고 험준함은 모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거늘, 그렇다고 중국 사람들이 수레를 없애고 통행하지 않던가?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어느 한곳에 막혀 있지 않고 사방에 흩어져 옮겨 다닐 수 있는 까닭은 모두 수레를 사용하는 이점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효과를 따져 보더라도, 우리 사신 일행이 모든 폐단을 없애고 우리가 만든 수레에 우리 물건을 싣고 곧바로 북경까지 닿는다면 편리할 터인데, 무엇을 꺼려서 하지 않는단 말인가?

영남 지방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관동 사람들은 산사 나무 열매를 절여서 간장을 대신하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꿀을 분간 못하고, 바닷가 사람들은 생선 창자를 받의 거름으로 쓰고 있다. 어찌다가 한번 이것 이 서울에 오면 한 움큼에 한 냥 값이니, 어찌 그리 귀하게 되는 것인가?

육진(六鎭) 지방의 마포(麻布), 관서 지방의 명주, 삼남 지방의 닥종이, 황해도 해서 지방의 솜과 쇠, 충남 내포의 소금과 생선 등은 모두 민생 일용품에서 빼 수 없는 물건이다. 충북 청산·보은의 수천 그루의 대추, 황해도 황주·봉산의 수천 그루의 배, 전남 홍양·남해의 수천 그루의 꿀·유자, 충남 임천·한산의 수천 그루의 모시, 관동 지방의 수천 통의 벌꿀 등은 모두 사람들이 날마다 필요한 물건들로서 서로 바꾸어 써서 도움을 주는 것이니, 누가 싫다 할 것인가?

그러나 이 지방에서는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는 귀하고, 이름만 들었을 뿐 물건을 볼 수 없는 까닭은 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는 곧 가져올 힘이 없는 까닭이다. 사방 수천 리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토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수레는 왜 못 다니는가. 한마디로 선비와 벼슬아치들의 죄이다.

사대부들이 평생 읽는다는 글은 『주례』라는 성인의 저술인데, 거기 나오는 거인(車人)이니 윤인(輪人)이니 여인(輿人)이니 주인(輶人)이니 하는 용어를 말하고 있지만 그저 입으로만 외울 뿐이요,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이 어떠한지 수레를 부리는 기술이 어떠한지 하는 연구는 없다. 이는 소위 전성으로 읽는 풍월일 뿐이니, 학문에야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중략)

누에고치를 켜는 수레인 소차(纜車)는 더욱 기묘해서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큰 톱니바퀴로 만드는 것은 맷돌을 돌리는 법과 동일하다. 소차의 양 끝에도 톱니바퀴를 만들어 들쭉날쭉하게 이가 맞물려 쉴 새 없이 돌아가게 한다.

소차는 몇 아름 되는 큰 열레이다. 누에고치를 수십 보 밖에서 삶고, 중간에 수십 층의 시렁을 설치하여 점차로 높고 낮은 형세가 되게 만든다. 시렁마다 그 끝에는 쇠조각을 세우고 바늘귀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 구멍에 실을 끼워 기계가 움직이고 바퀴를 돌게 한다. 바퀴가 돌면 열레가 돌아가게 되어 톱니가 서로 맞물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속도로 천천히 실을 뽑아내는데, 실끼리 서로 부딪치거나 맞닿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므로 가는 실과 거친 실이 같이 나올 염려는 없다.

솔에서 삶긴 고치가 나와 얼레에 들어갈 즈음에 두루쇠 구멍을 지나가게 되므로, 실에 붙었던 털이 나 까끄라기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얼레에 들어가기 전에 실의 바탕은 이미 건조되어 깨끗하고 투명하여 빛이 나서, 다시 수고스럽게 잣물에 빨 필요없이 바로 베틀에 올려 실로 사용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은 오직 손으로 당겨서 훑치는 것만 알지, 수레를 사용할 줄은 모른다.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타므로 이미 실로서 천연적이고 자연스런 품새가 없어지고, 실을 빼는 속도가 일정치 않아 실끼리 부딪치거나 맞닿을 때면 실과 고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함께 나아가 고치 판에 쌓이기도 한다. 실끼리 서로 엉겨 실의 갈피가 없어지고, 엉겨 붙고 말라 덩어리가 저서 실의 광택을 잃으며, 부스러기가 틀어막고 알맹이가 뚝뚝 감겨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여 실을 잣는 사람이 거친 실을 골라내고 가는 것만 챙기다 보니 입과 손가락이 함께 고생을 한다.

- 박지원, 「수레제도」 -

4. 윗글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 종류의 수레를 우선적으로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② 기행 도중 목격한 바퀴자국의 모습이, 『맹자』의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문구가 나타내는 모양과 같다고 생각한다.
- ③ 우리나라 '바닷가 사람들'에게 흔하게 취급되는 수산물이 내륙에 오면 귀해지는 상황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백성들이 곤궁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물자를 '가져올 힘이 없'기 때문이므로, 짐을 싣는 수레를 사용하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는 작업을 할 때, '명주실이 사람의 손을' 많이 탈수록 더 좋은 생산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속성에서 인간의 덕목을 유추하여 교훈적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대상이 작동하는 원리와 과정을 서술하여 그 대상의 효용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대상의 쓰임을 다른 종류의 수레와 비교하여 그 대상이 가지는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상이 널리 쓰이는 상황을 나열하여 그 대상에 대한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⑤ 대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른 살아 있는 대상에 빗대어 묘사하여 생동감을 유발하고 있다.

6. 글쓴이가 ㉠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레의 높은 이동성을 보여 주는 옛 문헌의 문구를 인용하고 있다.
- ② 중국에서는 아주 험한 곳에서도 수레가 많이 다닌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우리나라에는 법식에 맞는 수레가 없어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④ 수레를 잘 몰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험준한 곳에서도 수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닦일 것이라는 예측을 드러내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수레 제도」는 조선 후기 연암 박지원의 기행 문집 『열하일기』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청나라의 문물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밑바탕에는 공허한 학설이나 이론에 치우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도외시하던 양반 사대부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이용후생(利用厚生), 즉 백성들의 일상적 생활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시했던 그의 학문적 지향이 자리하고 있다. 글쓴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이 목격한 수레를 기존의 탐구 경험이나 지식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한편, 그 다양한 쓰임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관습적 사고를 극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 동시대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선구자적 면모를 보인다.

- ① '사람이 타는 수레와 짐을 싣는 수레는 민생과 관계되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라고 하는 데에서, 수레에 대한 관심의 밑바탕에 이용후생에 대한 학문적 지향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담헌 홍대용, 성재 이광려와 함께 수레 제도에 대해 강론한 바'를 언급하는 데에서, 기존의 탐구 경험과 관련지어 수레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③ '누가 싫다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청나라의 문물에 대해 탐구하는 일을 동시대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이겠군.
- ④ '소위 건성으로 읽는 풍월'은 수레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에는 무관심한 사대 부들의 학문적 태도를 문제 삼는 표현이겠군.
- ⑤ '우리나라에서 고치를 켜는 법'을 돌아보는 데에서, 지식 확장을 통해 당대 조선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선구자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 조카 허친(許親)이 집을 짓고서는 통곡헌(慟哭軒)이란 이름의 편액*을 내다 걸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거늘 무엇 때문에 곡(哭)이란 이름을 내세워 집에 편액을 건단 말이나? 게다가 곡이란 상(喪)을 당한 자식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하는 행위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곡소리를 몹시 듣기 싫어한다. 자네가 남들은 기필코 꺼리는 것을 일부러 가져다가 집에 걸어두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허친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저는 이 시대가 즐기는 것은 등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 시대가 환락을 즐기므로 저는 비애를 좋아하며, 이 세상이 우쭐대고 기분 내기를 좋아하므로 저는 울적하게 지내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부귀나 영예를 저는 더러운 물건인 양 버립니다. 오직 비천함과 가난, 곤궁과 궁핍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 살고 싶고, 하는 일마다 반드시 이 세상과 배치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것은 언제나 곡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란 이름을 내세워 제 집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서 나는 조카를 비웃은 많은 사람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A] “곡하는 것에도 도(道)가 있다. 인간의 일곱 가지 정(情) 가운데 슬픔보다 감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없다. 슬픔에 이르면 반드시 곡을 하기 마련인데, 그 슬픔을 자아내는 사연도 복잡다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사(時事)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진행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통곡한 가의(賈誼)가 있었고, 하얀 비단실이 본 바탕을 잃고 다른 색깔로 변하는 것을 슬퍼하여 통곡한 목적(墨翟)이 있었으며, 갈림길이 동쪽·서쪽으로 나 있는 것을 싫어하여 통곡한 양주(楊朱)가 있었다. 또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되어 통곡한 완적(阮籍)이 있었으며, 좋은 시대와 좋은 운명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세상 밖에 버려진 신세가 되어, 통곡하는 행위로써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인 당구(唐衢)가 있었다. 저 여러 군자들은 모두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통곡했을 뿐, 이별에 마음이 상해서나 남에게 굴욕을 느껴 가슴을 부여안은 채, 아녀자가 하는 통곡을 줌스럽게 흉내 내지 않았다.

저 여러 군자들이 처한 시대와 비교할 때, 오늘날은 훨씬 더 말세에 가깝다. 국가의 일은 날이 갈수록 그릇되어 가고, 선비의 행실은 날이 갈수록 허위에 젖어 들어가며, 친구들끼리 등을 돌리고 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배신행위는 길이 갈라져 분리됨보다 훨씬 심하다. 또 현명한 선비들이 곤액을 당하는 상황이 막다른 길에 봉착한 처지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모두들 인간 세상 밖으로 숨어 버리려는 계획을 짜낸다. 만약 저 여러 군자들이 이 시대를 직접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품을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모두들 팽함이

나 굴원이 그랬듯 바위를 가슴에 안고 물에 몸을 던지려 하지 않을까?

허친이, 통곡한다는 이름의 편액을 내건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통곡이란 편액을 비웃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비웃던 자들이 “잘 알았습니다.”라며 물러났다. 오간 대화를 정리하여 글로 써서, 못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풀어 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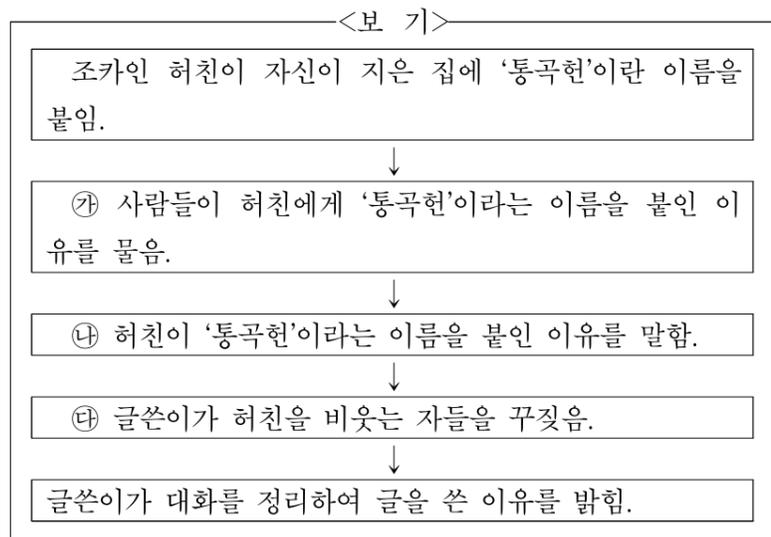
- 허균, 「통곡헌기」 -

*편액(扁額): 종이, 비단, 널빤지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

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친은 곡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고려하며 ‘통곡헌’이라고 집 이름을 지었다.
- ② 허친을 비웃은 사람들은 ‘나’가 허친을 설득해 그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랐다.
- ③ ‘나’는 허친을 비웃는 사람들이 통곡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 ④ ‘나’는 당대의 현명한 선비들이 곤액을 당하기보다는 숨어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 ⑤ 허친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과 달리 환락이나 부귀와 영예 등을 즐긴다고 판단했다.

9. 윗글의 구성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고정 관념에 근거한 질문을 통해 허친의 행위가 이치에 어긋남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에서는 허친이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대비하여 세상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③ ㉢에서는 허친이 직접 체험한 사건을 밝혀 세속적 삶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에서는 글쓴이가 파악한 부조리한 현실의 상황을 열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에서는 글쓴이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당대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10.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곡이 오랜 세월 동안 슬픔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음을 밝히고 있다.
- ② 인간의 일곱 가지 정 중에 슬픔이 가장 불필요한 감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군자가 세상사로 인한 슬픔을 드러낼 때 통곡의 방법이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 ④ 불우한 현실에서 도를 실현하는 데 통곡만 한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통곡하는 사람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술년(1718년)에 나는 예순여섯이 되었다. 앞니 하나가 까담 없이 빠져 버렸다.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며 얼굴도 비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 같아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사이에 길든 짧든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다.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예닐곱 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다. 여덟 살부터 예순이나 일흔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이다. 다시 여든 살부터 백 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다. 내가 산 햇수를 따져 보니 거의 사분의 삼을 살아 이의 나이 또한 한 갑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짧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가 없지만 능히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래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 한 것이 없고, 음식을 먹으면 이가 꼭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만다.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 낼 수가 없다. 결국 매미 배처럼 훌쩍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굶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 둘 수가 있다.”라고들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 중에는 아직 소리 내어 읽어 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 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로 마치기를 그려 보며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이제 한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종과 같다. 빠르고 느낌에 가락이 없고 맑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 칠음(七音)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八風)*을 알지 못한다. 처음엔 낭랑하게 하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

니 이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두고 만다. 덕성이 나태해져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의 큰일이다.

[A]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에 종일 말을 타기도 한다. 혹 천 리가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빠근한 줄 모른다. 내 연배를 살펴보더라도 나만 한 사람은 보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자못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가 반드시 몹시 피곤한 지경이 되어야 돌아오곤 했다. 산만 하여 수습을 못 하므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일 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했다. 하지만 예전 하던 버릇에 얽매어 저녁에 후회하고도 아침이면 되풀이하곤 했다. 대개 쇠하고 성함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B]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 꼴이 드러났다.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이가 없다. 그럴진대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다.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으로서 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선왕의 제도에 나이가 예순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며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일찍이 『예기(禮記)』를 읽었어도 이 뜻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쉴 수가 있을 것이다. 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 많은 셈이다.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存養)*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아갈 수가 있고 말이 헛나오니 침묵을 지킬 수가 있다.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경전 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 손익을 따져 보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것을 말한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노닐며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 김창흡, 「낙치설」 -

*팔풍: '팔음'을 뜻함. '팔음'은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나눈, 아악(雅樂)에서 쓰는 여덟 가지 악기. 또는 그 각각의 소리.

*존양: 본심을 잃지 않도록 착한 성품을 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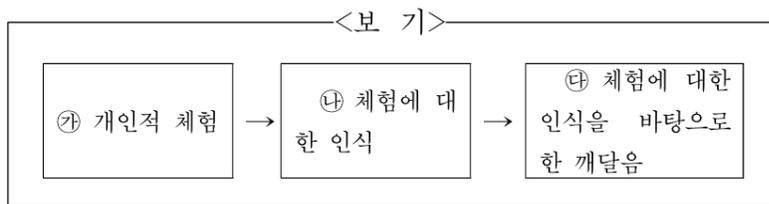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변화에 대한 진술을 통해 글쓴이가 인식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가 궁금해하는 바를 밝히고 있다.
- ③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쓴이가 바라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권위 있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의 근거로 삼고자 하고 있다.
- ⑤ ㉤: 대구의 표현을 사용하여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1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제기된 문제는 [B]에 나타난 사실로 인해 확장되었다.
- ② [A]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B]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③ [A]에 나타난 현실 인식이 [B]의 사건을 계기로 구체화되었다.
- ④ [A]에서 [B]로의 상황 변화는 글쓴이의 정서적 좌절의 원인이 된다.
- ⑤ [A]에서 [B]로의 인식 변화는 외모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13. <보기>는 윗글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글쓴이는 이 하나가 빠져 얼굴이 변하는 체험을 통해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에서 글쓴이는 ㉦와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 글쓴이는 ㉦의 상황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이치임을 깨닫고 있다.
- ④ ㉨에서 글쓴이는 늙음을 잊거나 탄식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에서 글쓴이는 요절과 장수의 차이는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임을 깨닫고 있다.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시민들은 공룡에 맞서 싸우기 위해 왕을 뽑기로 한다. '시민 마'가 임금으로 선출되자 '시민 바'는 박물관장 직을 요청한다. '박물관장'이 된 '시민 바'는 석회로 만들어진 알을 들고나와 알에서 임금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짓말로 임금을 죽음으로 내몬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 알에서 위대한 임금이 아닌 공룡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군중들: (소리) 위대한 임금님이나? 두려운 공룡이나?
 시민 라: 무엇이나구요? 우리의 지혜로써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느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그것마저 의아로워집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불안은 공룡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권리가 쓸모없어졌다는 데 주의하십시오. 우린 허수아비처럼 완전히 무력(無力) 상태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장이 우리의 손과 발에 줄을 엮으면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히로씨 말하고 있질 못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우리들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자 밑의 검붉은 반점들을 가리키며) 시민들이여, 여기 전왕의 피가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멋진 모자를 썼었고, 우리는 그 모자의 아름다운 형태를 수호해 왔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의 죽음을 용인했던 것은 저 알 속에 위대한 임금님의 실재(實在)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룡알이라고 믿는다면, 전왕의 고귀한 희생은 무엇으로 보상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들의 도덕적 타락은 어디에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 다: (감동한다.) 그렇군요. 사기꾼의 헛말에 현혹될 뻔했습니다. (알을 가리키며) 나도 알 속에는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시민 가: 나 역시 알 속의 임금님을 믿습니다.
 시민 나: 나는 새삼스레 저 알 속의 임금님을 믿겠노라 말하진 않겠어요. 그것은 내가 사람인 것처럼 자명한 사실 이니까.

시민 라: (군중들에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태양은 이 알과 우리 모두를 함께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엔 위대하신 임금님이 부화되어 나오십니다. 시민들은 사기 도박꾼에 대항하여 이 알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를 맹세합니다.

군중들: (환호성) ㉡**위대한 임금님 만세!**

(박물관장이 왕의 복장으로 들어온다.)

박물관장: (답례의 손을 흔들며) 나를 보라! 너희를 무서운 공룡으로부터 구출하실 위대한 임금님이 나오셨다.

군중들: (분노의 소리) 우리들은 알을 택한다. 너는 물러가라!

박물관장: 미친놈들이군. 사람 잡는 공룡을 왕으로 삼으려 하다니. (시민 대표 나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어디, 말

좀 해 보려무나. 저 알 속에 든 건 공룡이 아니라 임금님이라고 믿는 이유를?

시민 나: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장: 누가 너더러 사람이 아니래? 알 속에 임금님이 들어 있다는 증거를 대보란 말이야.

시민 나: (머뭇거리다가 다름 가리키며) 이 옆 사람이 그것을 믿기에 나도 믿습니다.

박물관장: 그래? (다에게) 넌 왜 믿지? 증거가 뭐야?

시민 다: (우물쭈물하다가 가를 가리키며) 이 옆 사람이 증거입니다. 나는 그를 따라 믿습니다.

박물관장: (가에게) 너, 대답해 봐.

시민 가: (라를 가리키고) 이 사람이 믿으라고 해섭니다.

시민 라: (박물관장 앞으로 나서며)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알 속엔 위대한 임금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박물관장: 허허? 무슨 똥판지 같은 소릴 하는 건지 모르겠군. (공룡의 무서운 동작을 흉내 내며) 알 속에는 공룡이 들어 있던 말이야. 그 괴물이 부화되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나 해? 너희들은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대문을 닫아걸고 숨어 있어야 한대구. (알에다가가서 위험한 물건에 손을 대듯이 슬쩍 만져 보고) 햇빛을 받아 알이 뜨듯해지기 시작했군. 이크! 벌써 꿈틀거린다!

시민 나: ㉠으악!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다.) 살기 위해 나는 간다!

(중략)

시민 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땅에 엎드리어 신왕(新王)에게 기어와 그의 발에 입 맞추며) 우리들의 왕이시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고 그 알 속에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진실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은 기꺼이 전하를 섬기겠습니다.

박물관장: 임금의 자리란 왕관이나 칭호로써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약점을 잡아 그들의 복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넌 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시민 라: 위대한 임금님이었습니다.

박물관장: 그럼 그것을 믿어라.

시민 라: 그러나 진실을 고백하자면 혹시 공룡이 들어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도 품고 있습니다.

박물관장: 공룡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시민 라: 네.

박물관장: 그럼 그것을 믿어라.

시민 가: 전하, 부디 둘 중에 하나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박물관장: 알 속엔 무엇이 들었었는데 정말 알고 싶은가?

시민 라: 그렇습니다.

박물관장: (상자 속에서 칼을 꺼내 라의 앞에 던져 주며) 우

리 다시 한번 더 노름을 하자. 그 칼은 내가 전왕을 겨누었던 칼이다. 이번에는 네가 나를 찔러 보라. 나는 결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임금이다. 너희들에게 이룰데 없는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칼을 쥐고 나를 찌르라. 자, 어서 찔러. 네가 나를 찌르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찌르게 된다!

시민 라: (칼을 쥐고 박물관장에게 다가간다. ㉢그의 가슴에 칼을 대었다가 힘없이 툭 떨어뜨린다.) 당신을 죽이면 알 속에 무엇이 들었었는데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고뇌를 해결할 수도 없구요. 나는 당신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 이강백, 「알」 -

14.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민 라'는 박물관장을 통해 알에 관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 ② '시민 나'는 알 속에 공룡이 있다는 '시민 라'의 말에 의심을 품었다.
- ③ '박물관장'은 알 속에 임금님이 들어 있다고 믿는 시민들을 추궁하였다.
- ④ '시민 가'와 '시민 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좇아 알 속에 임금님이 있다고 믿었다.
- ⑤ '박물관장'은 알에서 공룡이 부화하여 시민들을 해칠 것이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15. 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민들의 과거 기억을 환기시키는 소재로, 사건의 전말을 드러낸다.
- ②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 ③ 박물관장의 남다른 식견을 드러내는 소재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④ 박물관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잊게 하는 소재로,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
- ⑤ 시민들이 박물관장으로부터 받고 있던 의심을 해소하는 소재로, 긍정적 결말을 암시한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장막극인 「알」은 ‘권력자-군중-개인’의 인물 구도가 선명한 작품이다. 권력자인 ‘박물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알 속에 임금님이 있다, 공룡이 있다’를 반복하며 군중을 고통에 빠뜨린다. 개인인 ‘시민 라’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음을 깨닫고 권력자에게 의심을 품으며 그가 은폐해 놓은 세계의 음험함을 폭로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독점을 통한 권력 형성과, 그로 인한 등장인물 간의 권력관계가 드러난다.

- ① ㉠: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음을 깨달은 ‘시민 라’가 군중을 향해 권력의 형성에 따른 문제점을 폭로하고 있다.
- ② ㉡: ‘알 속의 임금님’을 기대하며 권력자인 ‘박물관장’에 대해 항하여 싸울 것을 다짐하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 ③ ㉢: ‘박물관장’의 말에 현혹된 군중의 반응으로, 권력자의 말에 의심을 품지 못하고 있다.
- ④ ㉣: 정보의 독점을 통해 권력을 형성한 ‘시민 라’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스스로 은폐해 놓았던 세계에 관한 정보를 폭로하고 있다.
- ⑤ ㉤: 권력자인 ‘박물관장’과 개인인 ‘시민 라’의 대립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권력자의 우위가 드러나고 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 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데요…….

최 노인: ㉠**변하는 것도 좋구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썽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경운: 왜요?

최 노인: 제깟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저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경운: 피해라뇨?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모가 도모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 멧 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

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 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이때 경재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재: 원 아버지두…….

최 노인: ㉡**이놈아 뭐가 우스워?**

경재: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경재: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설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상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에헴!

(중략)

경재: 절 보기 싫으면 중이 나가죠?

최 노인: 그래……. 왜 그건 또 묻는 거냐?

경재: (좌우 고층 건물을 가리키며) 저게 보기 싫으니 우리가 떠나야죠!

최 노인: 뭐, 뭐라구?

경재: 시외로 가면 후생 주택이 얼마든지 있대요. 집값도 싸고 무엇보다도 터전이 넓어서 화초며 채소는 얼마든지 심어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집집마다 맑은 우물이 있고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대요.

어머니: 참 창용이네도 지금 들어 있는 집을 팔고 그 후생 주택으로 옮긴답데다.

최 노인: ㉢**그렇게 가고 싶걸랑 따라가 살구려! 난 이 집에서 났으니 이 집에서 죽을 테니까!**

경재: (일부러 과장된 표정으로) 원자탄 고집 폭발이다! 다녀 오겠습니다!

(하며 급히 뛰어나간다. 이때 대문 안에 아침 목욕에서 돌아오는 경애 등장, 그의 손엔 목욕용 세숫대야며 화장품이 들렸고 얼굴엔 콜드크림이 범벅되어 반지르르 기름이 흐른다. 머리는 핀켈을 감은 채로다.)

경재: ‘미쓰 코리아’가 돌아오시네!

경애: 까불어?

경재: 도대체 큰누나는 언제 영화에 출연하는 거요?

경애: 가까운 장래! (하며 마루에 앉는다.)

경재: 혜성처럼 나타난 ‘뉴 페이스’ 최경애 양인가?

경애: 한국의 ‘김 노박’이다!

경재: 하나님 맙수사! ‘최 호박’이 안 되었으면…….

경애: 아니 이 녀석이! (하며 때리려 하자 소리를 지르며 퇴장)

최 노인: ㉣**경재란 놈은 어디 가든 제 밥벌이는 할 거야.** (하

며 만족한 웃음을 띠운다.)

어머니: 좀 경한 편이죠. (경애에게) 웬 목욕이 그렇게 오래 걸리니?

최 노인: 그래도 밤낮 익모초 찢는 쌍판보다는 낫지! 이 집에 그 누구처럼…….

(어머니와 경운은 뜻 품은 시선을 서로 던진다. 경애는 손톱에 손질을 하고 있다.)

최 노인: 경수 녀석은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지? (하며 험악한 시선을 던진다.)

어머니: (변명하듯) 어디 친구네 집에서나 잤겠조…….

최 노인: (성을 내며) 제집과 남의 집 분간도 못하는 놈이 어디 있어? (하며 담배를 다시 피워 문다.)

어머니: 내버려 두시구려! 어디 그 애에게 그런 재미도 없어서야 되겠수?

최 노인: 재미? 지금 우리 형편이 재미를 보기 위해서 살아갈 팔자야?

어머니: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최 노인: 당신은 좀 잠자코 있어! (하고 소리를 벌컥 지른다. 경운은 빨랫줄에다 빨래를 널며 눈치만 보고 경애는 재빨리 건넌방으로 들어간다.)

최 노인: 사람이란 암치가 있어야 하는 법이야! 제 놈이 군대에 갔다 왔으면 왔지 놀고먹으라는 법은 없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내일모레 삼십 고개를 바라보는 녀석이 취직이 안 된다 핑계 치고 비슬비슬 놀고만 있으면 돼? 첫째로 경운이 미안해서도 그럴 수는 없지!

경운: 아이 아버지두……. 오빠인들 속조차 없겠어요?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안 써 주는걸…….** 사회가 나쁘지 오빠야 무슨 잘못이예요?

[A]

어머니: 사실이에요…….

최 노인: 뭐가 사실이야? 나이 어린 누이가 그 굴속 같은 인쇄 공장에서 온종일 주구리고 앉아서 활자 줍는 노동으로 벌어들인 쥐꼬리만 한 월급에만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야? 나도 가게가 전과 같이 세가 난다면 이런 소리도 않지. 허지만 **골목 안 뚝개까지 신식만을 찾는 세상**이라 사모관 대나 원삼 쪽도리 따위는 이제 소꿉장난으로 아니 장사가 돼야지! 지난 봄철만 하드라도 꼭 네 번 밖에 안 나갔지 뭐야! 이럴 때 그 신식 나이롱 면사포나 두어 벌 장만한다면 또 모르지만…….

경애: (화장하던 얼굴을 내밀며)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최신식 미제 면사포**를 사 올 테니까요.

최 노인: ㉠네 말은 이제 콩으로 메주를 쏠대도 안 믿겠다! 네가 활동사진 배우가 되기를 기다리다간 엉렁이에 없는 꼬리가 나게 됐어!

경애: 두고 보세요. 오늘은 꼭 무슨 기별이 있을 테니까.

- 차범석, 「불모지」 -

17. ㉠~㉣에서 드러나는 ‘최 노인’의 심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집 주변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 ② ㉡: 자신의 말을 듣고 웃는 경재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 ③ ㉢: 아내에게 후생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 ④ ㉣: 경재가 집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공감해 준 점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⑤ ㉣: 허황된 기대를 품고 있는 경애의 다짐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18.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성을 띠는 무대 소품을 매개로 인물과 관객이 소통하고 있다.
- ② 무대 배경의 교체로 인해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대화를 주도하던 인물의 퇴장으로 인해 인물 간 대화의 화제가 전환되고 있다.
- ④ 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인물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인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 ⑤ 지시문에 의한 인물의 행동으로 인해 그 행동을 수행하는 인물의 성격이 희화화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 혼란기에 서울 중심부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을 통해 당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근대화와 도시화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가운데 전통적 가치관에 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며, 제각기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신세대들이 이와 대립각을 세운다. 그러나 신세대들 역시 방황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불모지’라는 제목이 보여 주듯 당대의 현실이 그만큼 암담했기 때문이다.

- ① 경재가 내세운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 ② 최 노인이 ‘이 집에서 났으니 이 집에서 죽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에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구세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경수가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안 써 주’는 처지에 놓인 상황은, 전후의 암담한 현실에 놓인 신세대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최 노인이 ‘골목 안 뚝개까지 신식만을 찾는 세상’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에서, 근대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이 해체되어 가는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군.
- ⑤ 경애가 사 오겠다고 하는 ‘최신식 미제 면사포’는 그 필요성 여부를 놓고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과 신세대가 대립하는 원인이 되는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88. 나무 아래
 맥고모자 호주머니를 뒤져서 은박지에 싼 초콜릿을 꺼내며,
 형사: 삼촌한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그래. 삼촌이 어디 있는
 지 얘기해 주면 내 이걸 주지.
 ㉠눈이 커지는 동만의 얼굴.
 형사: 너 이런 거 먹어 본 적 있어?
 은박지를 까서 윤기 흐르는 ㉡흑갈색의 초콜릿을 코앞에
 보인다. / 향긋한 냄새.
 형사: 초콜릿이야. 네가 대답만 하면 이걸 다 줄 테다. 뭐 조
 금도 부끄러워할 것 없다.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 것
이니까.
 동만: …….
 꿀꺽 침이 넘어가는 동만. / 뚝어지게 초콜릿만 노려본다.
 형사: 싫어? 그렇다면 이거 버려야겠구나. 아저씨는 이거 먹
 기 싫구…….
 ㉣한 조각 푹 떼서 땅에 버리고 구둑발로 문지른다. / 더욱
 눈이 뚱그레지는 동만.
 형사: 난 네가 굉장히 푹푹한 앤 줄 알았는데 안됐구나.
 또 한 조각 떼어서 짓뭇개 버린다. / 불불 떨어지는 동만. /
 웬지 눈물이 나는 동만.
 형사: 녀석, 우는구나? 인제라도 늦지 않아. 잘 생각해 봐. 삼
 촌이 집에 왔었지? 그게 언제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동만. / 와락 초콜릿을 잡으며,
 동만: 아저씨, 진짜지유? 진짜 우리 삼촌 친구지라?
 형사: (웃으며) 그럼 진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동만: ㉤삼촌 왔다 갔으라우. 그저께 밤에 왔다 갔으라우.
 벌써 초콜릿은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
 형사: 그래서? 자세히 얘기해 봐.
 날카로운 눈길 뜨며 귀담아듣는 맥고모자. / 무어라 얘기하
 는 동만의 모습.
 S#89. 동만의 집 앞
 옥이랑 나란히 어딘가 다녀오는 동만.
 손에는 푸득거리는 까치 새끼 세 마리를 들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동만네 집 앞에 여러 겹으로 싸여 있다. 이상해서
 까치 새끼를 옥이에게 건네주고 다가오는 동만.
 사람들이 물결처럼 흩어지며 안에서 결박 지운 아버지를
 끌고 나오는 ㉣맥고모자의 사내.
 동만: 어.
 눈이 화등잔만 하게 찢어지며 그 자리에 꼳꼳하게 서는 동
 만. /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아버지. 뒤에서 맥고모자의 사
 내가 동만을 흘깃 보고 지나간다.
 너무도 큰 충격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동만.
 동리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동만을 의미심장한 눈초리로
 보면서 무어라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간다. 그래도 얼이 빠진
 듯 그 자리에 서 있는 동만. / 이어서 집 안에서 찢는 듯한
 ㉤여인들의 통곡 소리.

옥이: 너 엄니 울어. 어서 들어가 봐.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
 가는 동만.
 S#90. 동만네 집 안
 친할머니, 어머니, 고모가 한데 엉켜 울어 대고 있다가 들
 어서는 동만을 보고,
 친할머니: 이놈이 천하에 벼락 맞을 놈.
 벼락같이 소릴 지르며 내달려 온다. / 겁결에 뒤로 피하는
 동만.
 친할머니: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과자 한 조각에 삼촌까지
 팔아먹는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놈, 이놈 썩 나가라 이
 주리를 틀 놈.
 ㉡부지깽이를 들고 와 사정없이 동만의 등줄기를 후려친다.
 / 금세 죽어 가듯 비명을 질러 대는 동만. 죽일 듯이 두들겨
 패는 친할머니. / 그때 외할머니 나와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외할머니: 고만 혀 두시오……. 어린것이 뭐 안다고.
 친할머니: 오냐. ㉢이젠 너그들끼리 한통속이 되어서 이 집안
에 씨를 말릴 작정이구나……. 하나는 악담을 허고 하
 나는 밀고를 허고…….
 외할머니: 아이가 알고서야 그랬겠소? 동만을 싸안고 사랑채
 로 간다.
 친할머니: 어이구! 어이구! 이 일을 어쩐디야 집안이 망허두
 곱게 망허야제. 이 이 일을 어쩐디야.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한다.
 - 윤홍길 원작, 윤삼육 각색, 「장마」 -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형사가 꺼내 든 초콜릿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일고 있다.
 - ② ㉡: 삼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주며 회유하고 있다.
 - ③ ㉢: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동만의 행동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④ ㉣: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형사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 ⑤ ㉤: 외할머니의 발언을 자신의 아들이 고난을 겪게 하려는 의도로 간주하며 격분하고 있다.

21. <보기>의 ㉠에 대한 대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시나리오의 촬영을 전제로 하는 대본입니다. 시나리오와 같은 극 갈래에서는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이나 갈등이 대사와 행동뿐만 아니라 배경, 의상, 소품, 음악과 음향 효과 등을 통해서도 형상화됩니다. ㉠여러분이 연출가라면 ㉡~㉣를 어떻게 연출하면 좋을지 말해 봅시다.

- ① ㉡: 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두고 동만이 심리적 갈등을 일으킬 만큼 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초콜릿이 소품으로 적절하겠어요.
- ② ㉢: 동만의 가족에게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도록 동만의 집 쪽을 에워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동만의 집을 배경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겠어요.
- ③ ㉣: 끌려가는 아버지를 곧 풀어 줄 것임을 암시하는 밝은 색깔의 모자가 의상으로 적절하겠어요.
- ④ ㉤: 끌려간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슬픔이 드러나는 음향 효과로, 동만의 집 안에서 들려오는 것이 적절하겠어요.
- ⑤ ㉥: 친할머니가 동만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즉흥적으로 집어 들고 휘두를 수 있는 막대기가 소품으로 적절하겠어요.

22. 밑글이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고 할 때, 밑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그러던 두 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내가 낯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부터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제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에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 윤홍길, 「장마」 -

- ① <보기>에서 ‘나’의 시선으로 서술된 사건을 S#89나 S#90에서는 각각의 등장인물이 자신의 대사나 행동으로 연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보기>에서 ‘낯모르는 사람’으로 표현된 등장인물을 S#88에서는 ‘형사’라는 구체적인 직업의 배역으로 설정하여 등장인물의 정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보기>에서 ‘할머니’가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원인을 S#89에서는 ‘쭈뼛쭈뼛 안으로 들어오는 ‘동만’의 행동으로 제시하여 ‘동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 ④ <보기>에서 서술자인 ‘나’가 전하는 ‘할머니의 말’을 S#90에서는 ‘친할머니’의 감정적인 대사와 함께 죽일 듯이 두들겨 패는 행동으로 지지하여 ‘친할머니’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 ⑤ <보기>에서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는 ‘외할머니’의 ‘역성’을 S#90에서는 ‘외할머니’가 ‘친할머니’를 향해 대사를 하며 동만을 짜안고 사랑채로 가는 행동으로 연기하도록 하여 ‘친할머니’의 행동과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다.